



모범운전자회 남원지회,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남원지회(회장 최영배)는 12월 17일,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남원시 모범운전자회의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남원시 내 불우이웃을 위해 매년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하는 20kg 백미 70포(환가액 약 300만 원)는 남원시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70가구에 방문 전달할 예정이다.

최영배 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으며, 최경식 남원시장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길기두 기자

전북대 총동창회, 학생 40명에 장학금 전달

'온누리 동행장학금' · '산민 한승현 장학금' 전달식… 후배 지속가능한 학업 지원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가 4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18일 전북대 총동창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주 FA레스토랑에서 온누리 동행장학금 및 산민 한승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은 제39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정영택 고문(의학 80)이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한 것이 초석이 됐다.

이에 2023년 25명의 장학생에게 2,5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올해는 공과대학 강대현 학생을 포함한 총 37명의 학생에게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故한승현 변



호사(정치과 53)를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 조성된 '산민 한승현 장학금'도 미련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문지 학생들 비롯한 3명의 학생에게 600만 원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

변) 전북지부가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산민 한승현 장학금 수여식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선 원장과 민변 전북지부 우아름 자부장이 참석해 그 뜻을 함께 기렸다.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전북대 등문으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청년농업인 김수석, 연말 맞아 백미 4kg 100포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8일 청년농업인 김수석씨가 연말을 맞아 백미 4kg 100포(150만 원 상당)를 기탁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된 것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농업인 김수석씨는 2024년 벼 신품종 조기 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해 온 농가로 새로운 품종의 보급과 확산에 힘쓰고 있다.

김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작은 정성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농업 발전에 힘쓰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김수석 농가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백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대강면 지사협, 착한가게 10호점 현판식

남원시 대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표·권기환)는 지난 12월 18일, 효성아네 백화(대표 이지예)에서 착한가게 10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문화 사업이다.

이제에 대표는 "작은 기부로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다니 잠시 할 때를 아끼며, 주위에 장애 있는 지인들에게 '착한가게'를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권기환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네리 홍보하고 숨어있는 지역지원과 후원자 발굴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희만 민간위원장은 "내년에도 복지 사각지대 빌미, 민간 지원 연계, 주민 단체 협력, 복지서비스 지원 등 복지행정 발전을 위한 중장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등장은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민간과 공공의 소통·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운정 넘치고, 든든한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기관단체장협, 취약계층 간식 지원

남원시 운봉읍 기관단체장협의회(회장 운봉읍장 이은주·회원 수 18명)는 연말을 맞아 운봉읍 34개 마을 경로당·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100만원 상당의 간식을 전달했다.

이번 간식 지원(리면 45박스)은 회원들의 십시일반 성금과 회비로 마련된 것으로 평소 운봉읍 발전과 지역민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 기관단체장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결실이다.

협의회 회장인 이은주 운봉읍장은 "기관단체장들은 평소 음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며, 올사년 새해에도 살기 좋은 운봉읍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 적상면 · 무풍면 생활개선회, 장학금 각 100만원 기탁



무주군 무풍면 생활개선회 송현옥 회장은 "오늘 장학금은 엄마의 마음으로 전달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무풍면 생활개선회라는 자긍심으로 앞으로도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풍면 생활개선회(회원 수 70명)에서 이날 기탁한 장학금은 2023년부터 대덕산 장터 축제 먹거리(국수 등) 판매와 경관 조성을 위한 꽃 심기, 떡국떡 나눔 활동을 통해 모아 온 기부금으로 일려졌다.

한편, 한국생활개선후원연합회(회장 윤정순)는 각 6개 읍면에 지회를 두고 활동 중으로 총회원은 416명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안성면 농촌지도자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 안성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1백만 원을 (재)무주군교육발전재단에 기탁했다.

공한규 회장은 "회원들이 농약 빈 병과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 부산물 파쇄작업 등 환경정화 활동으로 번 돈을 귀하게 쓰게 돼 정말로 기쁘다"며 "이야들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껏 꿈을 펼쳐나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안성면 농촌지도자회(회원 108명)는 선진 농업기술 교육과 선진지 견학, 과학 영농기술 정보교환 등 무주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토현영농조합법인, 정읍시에 성금 300만원 기탁

황토현영농조합법인(회장 김호인)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기탁식은 지난 17일, 시청에서 열렸으며 이하수 시장과 황토현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전했다.

황토현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황토현 어울림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또한, 2019년, 2022년, 2023년에도 운영 수익금으로 300만원씩 성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호인 위원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동충동, 동지 팔죽 나눔 행사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자남)는 18일, 남원시 도시재생센터 어울림마당에서 주민 150여명과 팔죽 온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동지 팔죽 나눔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이 거울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서적 인정과 사회적 지지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원시회복지관/요천유방극단 동충동 우리동네돌봄단, 꿈드래곤장애인협회 남원시지부 등 여러 단체의 아낌없는 후원 참여로 더욱 풍성한 나눔이 되었다.

한 주민은 "추운 날씨에 따뜻한 팔죽에 몸도 마음도 녹는 것 같다"라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흑염소협회 등, 연말 이웃돕기 성금 기부

남원시는 지난 17일 지역 내 흑염소 농가 40여戶 중 46戶의 농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흑염소협회(협회장 김병기)가 5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흑염소협회는 단체로, 매년 꾸준히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김병기 협회장은 "흑염소 농가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웃을 향한 나눔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내척동(향교동) 주민 최세완 씨가 백미(20kg) 20포를 기부했다고 밝히며, 이번 기부는 최세완 씨가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돋기 위해 쌀을 구매 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북지시설에 전달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최세완 씨는 전북직업자사 남원분뇨處理及 이용회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다양한 나눔과 봉사에 참여해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